

# 암울한 건설경기... 위태로운 건설사

### 부동산 규제·내년 SOC 예산 삭감에 전망지수 11.2P ↓ 건설사간 수주경쟁 심화... 하도급·장비업체 경영난 가중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전망을 예측하는 체감경기 지수도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 업계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대형건설사와 지역 중소건설사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이 지난 4일 발표한 건설업체감경기(CBSI) 자료에 따르면 8월 CBSI는 전월 대비 11.2포인트 하락한 74.2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월(73.5) 이후 1년7개월 만의 최저치로, 특히 대형 건설사의 체감경기 지수가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전체 건설업 침체를 반영했다.

CBSI는 건설기업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수치화한 지표로 기준선(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CBSI는 지난 6월 90.4로 지난해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7월과 8월 연이어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가 급락했다. 대형기업은 전월 대비 27.4포인트 하락한 64.3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8월(50.0) 이후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6.2포인트 하락한 76.9, 중소기업은 2.1포인트 상승한 71.7을 각각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이 전월에 비해 17.1포인트 크게 하락한 89.8을 기록했으며 지방기업도 2.4포인트 하락한 70.3을 보였다.

박철한 건설연 연구위원은 “8월에 흑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단순한 계절적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결정적이며 올해보다 20% 감축 편성한 내년도 SOC 예산안 발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부가 올해보다 20% 감축 편성한 2018년 SOC 예산안이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도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건설물량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광주·완도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건설 등 지역에서 굵직한 사업 예산이 요구액보다 대폭 삭감됐다.

이와 관련 김경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은 “핵심사업으로 평가받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업체인 물량발주, 분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건설업체 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지역에서 굵직한 사업 예산이 요구액보다 대폭 삭감되면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장비·자재 공급 업체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유야 어쨌든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간 저가수주 경쟁이 심화하면 자금력에서 밀리는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6.62 (-3.03)	금리 (국고채 3년) 1.78% (0.00)
↓ 코스닥 648.75 (-2.14)	↓ 환율 (USD) 1131.10원 (-1.90)



### 광주은행, 해피라이프 이벤트 경품 증정

#### 여행스케치적금II 출시 기념...22일까지 2차 이벤트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5일 본점 17층 회의실에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II’ 출시 기념 1차 이벤트 당첨고객에 대한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8월 새롭게 출시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II’는 ▲하나투어 지정대리점 여행상품 결제금액의 0.5% 추가 캐쉬백 ▲적금 가입기간 중 환전 시 최대 70%까지 환율우대 서비스 ▲하나투어 그룹사 SM면세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 1차 이벤트는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II’ 출시를 기념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커피 해외왕복 항공권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II’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2명을 추첨하여 커피 해외왕복권을 제공하는 2차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5000번째와 1만번째 가입고객에게는 여행마일리지도 제공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세련미+전통미 보해 새 매취순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매취순의 새 디자인을 공개하고 매실주 시장 부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새 디자인은 프리미엄 매실주로 자리매김한 매취순 오리지널의 품격과 보해양조의 장인정신을 반영했다. 특히 진실하다는 의미의 한자어인 ‘순’을 전면 라벨과 뚜껑에 크게 새겨 넣어 매실 수확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담아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만을 선보이겠다는 보해양조의 의지를 표현했다.

매취순 빛깔이 보이는 투명한 용기로 깨끗한 이미지를 더했으며 하얀색 라벨과 뚜껑으로 매화꽃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제품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라벨에 새겨진 한자어 ‘순’ 주변으로 금색 테두리를 격자 구조로 배치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했다.

병목에는 ‘숙성매실주(熟成梅實酒)’라고 적힌 라벨도 추가했다. 출시 초반, 폭발적인 수요로 공급을 맞추기 힘들 때에도 5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엄격하게 지켜 최고 품질만을 고집해 온 보해 만의 철칙 엄수 정신을 내세웠다.

매취순은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한 보해해남매실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청매실을 숙성하여 만든 제품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 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하나로마트 소형점 환경개선 1호점 개장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홍목)는 5일 매장 환경개선을 마친 담양 대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남 하나로마트 소형점 환경개선(리뉴얼) 1호점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목 본부장장과 이재근 대전농협조합장, 고하영 농협하나로유통 부장, 이종기 농협담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금호타이어 채권단-더블스타 매각협상 결렬

#### 가격인하 요구에 수용 불가...박삼구 회장측에 자구안 요구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를 가격인하한 수용 안기로 합의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5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 인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추가 가격조정 등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합의를 더블스타에 송부하는 안건을 결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이 악화된 것보다 나빠졌으며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더블스타는 가격을 더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뿐 아니라 고용보장 등 채권단이 원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아울러 이날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주협의회 평가 결과 자구계획안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 되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각 채권은행의 내부 동의를 거쳐 오는 8일 결의되며 더블스타가 채권단의 불수용 의사에 재협상 의지를 나타내면 협상이 재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실속 없는 사업체수 증가

#### 광주·전남 5년새 도소매 28%·숙박업 17% 늘어

#### 영업이익은 뒷걸음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이익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조사 광주·전남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변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광주 전체 사업체수는 11만3424개로 2010년 9만9976개에 비해 13.5%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만1179개(27.5%)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업 1만8818개(16.6%),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만3322개(11.7%) 등의 순이었다.

도·소매업은 5년 전인 2010년 2만7243개(27.2%)에 비해 14.4%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업은 1만6839개(16.8%)에 비해 11.8% 증가했다.

전남지역 사업체수는 14만7198개로 2010년 12만5395개에 비해 17.4% 증가했다. 산업별로 도·소매업이 4만1240개(28.0%)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 3만218개(20.5%),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만8332개(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5년전에 비해 16.2%, 숙박·음식업은 16.0%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2015년 전체 산업의 매출액은 121조, 영업이익은 7조8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6.5%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2015년 전체 산업의 매출액은 192조, 영업이익은 14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은 7.3%를 기록했다. 2010년 영업이익률은 11.2%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